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13>

제31호 경기소리 임정란씨

경기소리 전파... '신명난 소리꾼'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을 노래한 '유산가', 춘향의 오묘한 눈매가 선하게 떠오르는 '형장가', '제비 후리러 나간다'는 '제비가'는 청색이 즐겨들던 경기잡가다. 맑고 경쾌한 경기소리는 서울·경기지방에서 부르던 '경기잡가'와 '경기민요' 등을 통틀어 부른다. 경기잡가는 앉아서 부르는 좌장으로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선유가, 평양가 등 12가지가 있으며, 스승을 통해 배우는 전문적인 소리꾼의 소리다. 반면 민요는 한 지방의 소박하고 향토적인 맛이 오랜동안 구전된 것으로 민중의 삶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소리다. 잡가(雜歌)는 긴잡가와 휘몰이잡가로 나뉘는데 긴잡가는 '12잡가'라고도 불리며, 앉아서 부른다는 의미에서 '12좌장'이라고도 한다.

명창 임정란씨(61·본명 임정자·경기도립국악단 민요악장)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긴잡가 보유자다. 임씨는 "잡가는 판소리나 민요처럼 굴곡이 많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 답답한 어조"라며 "마치 강위를 유유히 흐르는 배에서 주변풍경을 감상하며 나직이 탄성을 자아내는 듯 울리는 노래"라고 말했다. 경기잡가는 구한말 서울 문(門) 안과 근교의 장인, 발장이, 한량(閑良) 출신 소리꾼들에 의해 전승 발전되어 왔다. 특히 서울 만리재에서 청파(靑坡)에 이르는 일대의 소리꾼들이 잡가를 잘했다고 한다. 당시 유명했던 소리꾼으로 '추조박'(秋曹朴)이라는 3인이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기교에 뛰어난 추교신(秋敎信), 성대를 잘 타고난 조기준(曹基俊), 잡가로 이름이 높던 박춘경(朴春景)이 그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박춘경이 잡가를 많이 짓고 잘 불렀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이전까지 대중가요로 인기를 구가했던 잡가는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대중들과 멀어졌다가 70, 80년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 계승되고 있다.

경기소리보존회 설립...공연·출판 '활발'

경기도에서는 과천 출신인 임씨가 경기소리의 계승, 발전은 물론 대중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보존회를 설립해 창작 경기소리극, 경기소리전집 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보존회(이사장 임정란)는 경기민요 보급과 학문적 정립을 위해 설립했으며, 각종 경기공연 및 출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소리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과 과천시민회관 무대에 올린 창작 경기소리극 '낙시대장 서열'(연출 김순영)은 임씨의 국악 대중화의 결정판. "수원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연희놀이중 하나인 '낙시도사 잡생이극'을 기본 모티브로, 구전돼 내려오던 '서열설화'를 접목시킨 작품입니다" 작품의 총 지휘를 맡은 임씨는 소리꾼 40여명과 연주자 등을 합쳐 총 80여 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소리극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물고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환경친화적인 내용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회갑기념으로 준비한 작품이에요. 소리극이란 새로운 장르를 시작한 김에 제대로 만들려다 보니 1억2천500만원이란 제작비가 들어갔어요. 문광부에서 지원받은 6천만원 말고도 사비가 꽤 들어가 셈이지요" 여기서 소리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서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1년반동안 동작성 등 연극적인 기본기술을 익히기 위해 전문연극연출가를 초빙해 맹연습을 거듭했다. 과천 공연 때는 '창극'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는 임씨는 주위에서 소리극과 창극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경기도내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한다.

40년 소리인생 '경기소리 대전집'에 담아

굴곡진 일들을 시원스레 처리하는 임씨는 지난 2001년 9월 '경기소리 대전집(상·하)'을 펴냈다. 40여년 소리인생의 집결체인 이 책은 경기12잡가를 비롯해 잡잡가, 휘몰이잡가, 놀랑, 산타령, 송서를 삼켰어 실었으며, 하근에는 경기민요와 각 지방별 민요를 수록한데 이어 회심곡, 탐들이 등 불가와 관련된 곡을 담았다. 임씨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소리를 하고, 채록을 거쳐 작곡가에 의해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3년에 걸쳐 진행했다. 소리의 전승이 구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책자로 정리해야겠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 "제자들에게 이창배 선생의 소리를 가르치던중 아이들마다 소리가 달라 여성의 소리로 된 자료집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책자로 만든 것이 동기예요" 이처럼 임씨가 다른 예인들과 다른 것은 생각한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1999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임씨는 어릴때부터 우리 전통문화의 가풍에서 자랐다. 옛말로 광대집이라 불릴 정도로 집안 어른 중에는 예인이 많았다. 여성 국극단에서 가야금과 태평소(호적)를 연주하던 친척이 있었으며, 줄타기 명인이었던 임상문씨가 오촌 당숙으로 그 후계자가 줄타기 중요무형문화재였던 김영철이며, 지금은 김대균씨가 그 맥을 잇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소리가 남달랐던 임씨의 본격적인 소리인생은 대강놀이의 명인인 고 지연화 선생의 권유로 이창배·정득만 선생이 운영하는 서울 청구고전 성악학원에 1963년

입학하면서부터다. 청구고전 성악학원은 경·서도소리는 물론 가곡, 가사, 시조 등 명창이 갖춰야할 예능들을 고루 가르쳤다. 이후 성악학원을 수료한 임씨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소리 보유자인 묵계월 선생을 만나 전국을 돌며 국악공연을 벌였다. 1975년 묵계월 선생의 첫 장학 전수생이 된 임씨는 1980년 이수자에 이어 1983년 전수조교 그리고 1990년에는 예능보유자 후보에 이르렀다. 서울서 활동하던 임씨는 지난 1987년 고향으로 돌아와 열악한 경기도의 경기소리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기 시작했다. 임씨는 "경기민요가 경기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민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소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임씨는 1998년 1월 경기도립국악단 민요악장으로 취임, 도내 곳곳을 다니며, 경기소리의 멋과 흥을 알리는데 분주했다. 임씨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은 물론 학교 교육을 위해 경기민요 전문강사 양성, 전통문화교실 강의 등 교육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창작극 공연·후학 양성 등 소리잇기 '심혈'

앨범작업에도 열심인 임씨는 1979년 지화자씨와 부른 '창부타령'을 비롯해 경기12잡가 완창기념 등 앨범 7개를 발간하기도 했다. 7일 과천시민상 문화상을 수상하는 임씨는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 장원과 KBS민요부 국악대상을 2차례 수상했으며, 현재 전주대사습 등 각종 국악대회에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소리 알리기에 열심인 임씨는 민간외교관으로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내년 1월께 하와이 한인회 초청공연을 준비중인 임씨는 "경기도는 물론 해외에 우리 소리를 보급하기 위해 현지 국악학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씨는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할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컨디션을 감안해서라도 늘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네 삶이 힘들때 소리 한대목을 들려주기 위한 명창의 몸가짐이 우리 소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